

간호대학생의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임세미¹, 염영란^{2*}

¹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Nursing Students

Semi Lim¹, Young-Ran Yeom^{2*}

¹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조직사회화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2023년 05월 04일부터 2023년 06월 10일까지 G시 소재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 간호대학생 2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독립표본 t검정, ANOVA, Scheffé test, Games-Howell test,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조직사회화는 감성지능($r=.61, p<.001$), 셀프리더십($r=.64,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사회화에 대한 영향요인은 셀프리더십($\beta=.407, p<.001$), 감성지능($\beta=.320, p<.001$), 대인관계가 좋을수록($\beta=.139, p=.004$), 종교가 있는 경우($\beta=.103, p=.030$) 순으로 총 변화량의 51.1%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조직사회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 임상실습, 간호대학생,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조직사회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From May 4, 2023 to June 10, 2023, 226 3rd year nursing students attending two universities located in G city were enroll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Scheffé test, Games-Howell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tatistically,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intelligence ($r=.61, p<.001$) and self-leadership ($r=.64, p<.001$). The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were self-leadership ($\beta=.407, p<.001$), emotional intelligence ($\beta=.320, p<.001$), and bet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ta=.139, p=.004$), followed by religion ($\beta=.103, p=.030$), explaining 51.1% of the total vari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s are needed to improve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search funds from Gwangju University in 2023.

*Corresponding Author : Young-Ran Yeom(pseudoan@naver.com)

Received September 1, 2023

Revised September 25, 2023

Accepted November 20, 2023

Published November 28, 2023

1. 서론

우리나라는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 수요 증가로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등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간호사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1]. 의료서비스 질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충분한 병원 인력으로 안정적으로 필요한 의료 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 의료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2]. 특히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 문제 해결과 건강증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적정 인력수급이 시급하다[3]. 병원간호사회[4]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간호사의 연평균 이직률은 14.5%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간호사 2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이직하는 실정이다. 신규간호사는 병원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고 조직 내 동료 간의 신뢰, 책임감, 존중을 토대로 교환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관계의 형성이 어려운 경우 조직사회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5,6]. 조직사회화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수행 능력의 함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조직구성원으로 역할 수행에 필요한 가치관, 수행능력, 기대되는 행위, 조직 내 사회의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자신과 조직의 가치관이 일치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어 정보가 필요할 때, 지지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7].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조직 내의 교환관계를 경험하며 조직사회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조직사회화 정도 및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조직사회화 정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추후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회화 관련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임상수행능력, 간호핵심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8], 셀프리더십, 공동체 의식[8,9], 의사소통능력, 집단응집력[10] 등의 변수가 포함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긍정적 자원 중 하나는 감성지능으로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주어진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11]. 또한 감성지능은 합리적인 사고로 타인과 공감하고 개인의 감정을 원활히 조절할 수 있는 긍정적 성향으로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기 때문에 조

직사회화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간호대학생은 간호현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로 임상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12].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감성지능은 직업만족도, 경력몰입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14]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뿐만 아니라 이직률 감소에도 영향력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율적이고 책임감이 강조되고 셀프리더십이 가정하고 있는 신념, 의지, 윤리, 도덕, 규범과 같은 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 대학생 시기가 결정적 시기라고 볼 수 있다[15]. 또한 조직구성원들이 스스로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6] 셀프리더십이 간호사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간호업무성과, 조직시민행동, 간호정보역량[17], 의사소통 수행능력 및 임상수행능력[18,19] 등의 변수와 관련이 있어 조직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예측할 수 있다.

조직사회화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이 대부분 간호사로 진행되었고[19-25] 간호사의 조직사회화는 조직몰입[22], 임상수행능력[23,24], 감성지능[24], 회복탄력성[21], 셀프리더십[25]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직사회화 정도 및 영향요인은 간호사의 경력에 따라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22] 간호대학생의 조직사회화의 정도와 영향요인은 간호사와 다를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직사회화 정도를 파악하고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예측되는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조직사회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셀프리더십이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G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10]를 근거로 기초학 수업과 교내실습을 이수한 후 3학년 1학기 교과과정 중에 있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으로 하였다. 임상실습을 통하여 조직사회화를 경험하는 단계이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으로 생각 되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 산정은 G*Power 3.0.10 program를 이용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조직사회화 관련 선행연구의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및 선행연구[8-10]를 참고한 예측변수 10개(감성지능, 셀프리더십)를 적용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72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두 개 학교 3학년 전수인 260명의 학생에게 설문 요청을 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226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탈락한 설문 없이 총 22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감성지능

Wong과 Low[26]가 개발한 도구인 Emotional Intelligence Scale(WLEIS)를 Jeong 등[27]이 번안하고 검증한 한국어판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자기감성 인식, 타인감성 인식, 감성활용, 감성 조절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7점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8$ 이었다.

2.3.2 셀프리더십

Manz[28]가 개발하고 Kim[29]이 수정하고 Kim[30]이 간호대학생에게 알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 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점 '항상 그렇다' 까지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3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2.3.3 조직사회화

Morrison[31]의 도구를 Lee[10]이 간호대학생에게 알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역할 명확성, 성과효능감, 수용성, 사회적 통합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점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사회화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2023년 05월 04일부터 2023년 06월 10일까지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google forms 설문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직접 배포 후 URL로 접속하여 자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으로 설문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연구 진행방법, 설문시 중도 철회, 대상자의 비밀보호 등을 설명하고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작성에는 약 5-1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상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사회화에 대한 분석은 독립표본 t검정,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와 Games-Howell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조직사회화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189명(83.6%), 남성 37명(16.4%)이었다. 연령은 25세 이하가 166명(73.5%), 종교는 '없다' 169명(74.8%)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좋다'가 142명(62.8%), 이혼교육만족도는 '좋다'가 134명(59.3%), 실무교육만족도는 '좋다'가 129명(57.1%)이었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로는 '취업을 고려해서'가 123명(54.4%), '적성에 맞아서'가 53명(23.5%), '주위의 권유'

가 27명(11.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7(16.4)
	Female	189(83.6)
Age (yr)	≤25	166(73.5)
	>25	60(26.5)
Religion	Yes	57(25.2)
	No	169(74.8)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42(62.8)
	Moderate	81(35.8)
	Bad	3(1.4)
Theoretical education satisfaction	Good	134(59.3)
	Moderate	81(35.8)
	Bad	11(4.9)
Practice education satisfaction	Good	129(57.1)
	Moderate	92(40.7)
	Bad	5(2.2)
Reasons to applying	For voluntary service	53(23.5)
	To get a job	123(54.4)
	On the recommendation from significant other One's will	27(11.9)
	According to grades	11(4.9)
	Others	12(5.3)

3.2 감성지능, 셸프리더십, 조직사회화 정도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 5.20±1.17점, 셸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3.86±0.69점, 조직사회화는 5점 만점에 3.99±0.6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Variables	M±SD	Min-Max	range
Emotional Intelligence	5.20±1.17	2.44-7.00	1-7
Self-leadership	3.86±0.69	1.33-5.00	1-5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3.99±0.66	1.36-5.00	1-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사회화 정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사회화 정도는 연령($t=2.10$ $p=.037$), 종교유무($t=3.07$ $p=.002$), 대인관계($F=13.74$, $p<.001$), 이론교육만족도($F=14.28$, $p<.001$), 실습교육만족도($F=15.7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나이는 '25세 이하'가 '26세 이상'보다, 종교는 '있음'이 '없음'보다, 대인관계는 ' 좋음'이 '보통'보다, 이론교육만족도는 '만족'이 '보통'이나 '불

만족'보다, 실습교육만족도는 '만족'이 '보통'보다 조직사회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egree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F (p) post hoc
Gender	Male	37(16.4)	4.05±0.72	0.60 (.546)
	Female	189(83.6)	3.98±0.64	
Age (yr)	≤25	166(73.5)	4.05±0.64	2.10 (.037)
	>25	60(26.5)	3.99±0.66	
Religion	Yes	57(25.2)	4.21±0.57	3.07 (.002)
	No	169(74.8)	3.92±0.67	
Interpersonal relationship †	Good ^a	142(62.8)	4.15±0.60	13.74 (<.001) a)b
	Moderate ^b	81(35.8)	3.70±0.64	
	Bad ^c	3(1.4)	4.27±0.66	
Theoretical education satisfaction	Good ^a	134(59.3)	4.17±0.62	14.28 (<.001) a)b,c
	Moderate ^b	81(35.8)	3.76±0.64	
	Bad ^c	11(4.9)	3.53±0.53	
Practice education satisfaction †	Good ^a	129(57.1)	4.14±0.60	15.72 (<.001) a)b
	Moderate ^b	92(40.7)	3.84±0.62	
	Bad ^c	5(2.2)	2.82±0.66	
Reasons to applying	For voluntary service	53(23.5)	4.17±0.66	2.03 (.091)
	To get a job	123(54.4)	3.95±0.60	
	On the recommendation from significant other One's will	27(11.9)	3.85±0.58	
	According to grades	11(4.9)	4.17±0.63	
	Others	12(5.3)	3.78±1.09	

† Games-Howell test

3.4 감성지능, 셸프리더십, 조직사회화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조직사회화는 감성지능($r=.61$, $p<.001$), 셸프리더십($r=.64$,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r(p)	r(p)	r(p)
Emotional Intelligence	1		
Self-leadership	.60 (<.001)	1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61 (<.001)	.64 (<.001)	1

3.5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사회화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감성지능, 셀프리더십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종교, 대인관계, 이론교육만족도, 실습교육만족도를 가변수 처리 후 포함시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충족에 대한 검토 결과,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독립적이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2.11로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다. 오차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공차한계(Tolerance)는 0.63~0.98로 0.3이상 1.0이하였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3~1.59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조직사회화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9.86, p<.001$) 수정된 결정계수는 .51이었다. 조직사회화에 영향요인으로는 셀프리더십($\beta=.41, p<.001$), 감성지능 ($\beta=.32, p<.001$), 대인관계가 좋을수록($\beta=.14, p=.004$), 종교가 있는 경우($\beta=.10, p=.030$) 순으로 총 변화량의 51%를 설명하였고 Table 5와 같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N=226)

Variables (reference)	B	S.E	β	t	p	
(constant)	1.41	.18		7.90	<.001	
Self-leadership	.39	.06	.41	6.91	<.001	
Emotional Intelligence	.18	.03	.32	5.46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d)	Good	.19	.07	.14	2.88	.004
Religion(No)	Yes	.16	.07	.10	2.19	.030
$F=59.86 (p<.001), R^2=.52, Adj. R^2=.51$						

4. 논의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조직사회화 정도를 파악하고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조직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 평균 5.20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

용한 연구에서는 평균 5.10점[13], 4.94점[32], 4.53점[33]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더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학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선행연구는 간호대학생 전 학년 대상[32] 또는 3, 4학년 대상[13,33]으로 시행되었기에 직접적인 비교분석은 어렵다.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은 조직사회화의 입문 단계로 본 연구대상자를 3학년 학생으로 제한하였기에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3학년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정도를 파악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서 낮은 환경 및 대상자와 마주하게 되고 본인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협하기 위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때 본인의 감정을 통제하고 올바른 사고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졸업까지 임상실습을 계속 진행해야 하므로 선행연구에서 평균 점수가 3학년보다 낮은 결과로 볼 때 임상실습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34]이나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86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평균 3.47점[30], 3.42점[9]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더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Kim[30]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3학년 162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대상자 수와 차이가 있고 Kwon[9]의 연구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30]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은 이론교육만족도에서 평균 3.60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고 있어 개인이 경험하는 이론교과과정 또는 임상실습 등 교육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전공 교과목의 흥미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자 및 보호자를 간호하며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능력과 목적의식 향상을 위한 대학의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조직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분석력을 함양하여 긍정적인 동기부여와 자기비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교수 학습 전략이[35]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조직사회화는 5점 만점에 평균 3.99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평균 3.79점[10], 3.52점[9]으로 나타났

다. Lee[10]의 연구는 본 연구대상자와 동일한 3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Kwon 등[9]의 연구에서는 4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 4학년에 비해 3학년의 조직사회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시점으로 갈수록 조직사회화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이 조직의 일원으로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와 산업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회화의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하기에 추후 간호대학생 3, 4학년의 조직사회화 정도를 비교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사회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나이 25세 이하, 종교가 있는 경우, 대인관계, 이론교육만족도, 실습교육만족도가 좋을수록 조직사회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9]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고, 대인관계, 이론교육만족도, 실습교육만족도가 좋을수록 간호대학생의 조직사회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9,10]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학년년부터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간호학 전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또는 교과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조직사회화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조직사회화는 감성지능,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조직사회화는 감성지능[23], 셀프리더십[9]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감성지능 및 셀프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과 비교과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조직사회화의 영향요인은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대인관계 좋음, 종교 있음 순으로 나타났다. 즉,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대인관계 좋음은 조직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종교 있음은 조직사회화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8,9]에서 간호대학생의 셀

프리더십은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날 간호사의 전문적인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및 조직사회화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 임상실습을 시행하면서 조직사회화에 첫 발을 내딛은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조직사회화 정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첫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셀프리더십, 조직사회화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조직사회화는 셀프리더십과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가 높았고, 감성지능과 셀프리더십 및 조직사회화 간의 상관관계에서 조직사회화는 감성지능,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조직사회화에 대한 영향요인은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대인관계, 종교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직사회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성지능이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회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비교분석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둘째, G시 소재 2개 대학 내의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되었으므로 연구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 두 개의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추후 4학년 간호대학생까지 확대하여 반복 연구 및 3, 4학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를 제안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조직사회화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entation of measures*

-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reatment of nurs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Online).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21551013022_20180320220333.hwp&rs=/upload/viewer/result/202307/
- [2] Medical today. (2023). *There is a shortage of doctors and nurses*. Medical today(Online).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80635880300>
- [3] P. Griffiths et al. (2016). Nurse staffing and patient outcomes: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evidence to inform policy and practice. A review and discussion paper based on evidence reviewed for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Safe Staffing guideline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63, 213-225.
 DOI : 10.1016/j.ijnurstu.2016.03.012
- [4]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21). *Investigation of current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placement*. Seoul: Hospital nurses association.
- [5] Y. S. Kim & K. Y. Park. (2016). Influence of customer orientation, emotional labor, exchange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 bonds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4), 396-405.
 DOI : 10.11111/jkana.2016.22.4.396
- [6] S. J. Kim & H. J. Park. (2019). The effect of new nurses' perception on exchange resilience a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3), 1025-1044.
 DOI : 10.22251/jlcci.2019.19.3.1025
- [7] M. S. Kim & S. O. Choi. (2003), Concept analysis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9(1), 19-30.
- [8] M. H. Kwak & S. B. Kwon. (2021).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7(2), 96-106.
 DOI : 10.11111/jkana.2021.27.2.96
- [9] S. B. Kwon & M. H. Kwak. (2018).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sense of community o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2(3), 169-180.
 DOI : 10.12811/kshsm.2018.12.3.169
- [10] Y. J. Yi. (2014).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463-470.
 DOI : 10.5977/jkasne.2014.20.4.463
- [11] C. M. Ko. (2017). Effects of empower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um stress and burnou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Clinical Practicum Stress and Burnout*, 25(2), 120-127.
 DOI : 10.17547/kjsr.2017.25.2.120
- [12] A. K. Lee, H. S. You & I. H. Park. (2015).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2), 154-163.
 DOI : 10.11111/jkana.2015.21.2.154
- [13] J. E. Song & H. J. Chae. (2014). Differences in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02-512.
 DOI : 10.5977/jkasne.2014.20.4.503
- [14] A. K. Lee, J. Y. Yeo, S. Jung & S. S. Byun. (2013). Relations on communication competence, job-stress and job-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2), 299-308.
 DOI : 10.5392/JKCA.2013.13.12.299
- [15] M. J. Kim. (2007). *An inquiry into learner factors influencing the self-leadership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6] S. J. Park & I. S. Park. (202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reer*, 11(3), 67-87.
 DOI : 10.35273/jec.2021.11.3.004
- [17] H. J. Won & S. H. Cho. (2013). A review of research on self-leadership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19(3), 382-393.

- DOI : 10.11111/jkana.2013.19.3.382
- [18] H. S. Park. (2021).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and clinical competency on career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and clinical competency.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6(4), 420-428.
DOI : 10.21032/jhis.2021.46.4.420
- [19] J. H. Lee, H. R. Noh & J. Y. Park. (2020). Predictive factors of turnover intention in new nurses. *Journal of Muscle Joint Health*, 27(1), 50-60. DOI : 10.5953/JMJH.2020.27.1.50
- [20] K. I. Jung. (2017).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in clinical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1(4), 53-65.
DOI : 10.12811/kshsm.2017.11.4.053
- [21] S. H. Song & J. Y. Ha. (2018). Influencing factors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nurses : resilience and mentor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 559-568.
DOI : 10.21742/AJMAHS.2018.01.38
- [22] Y. H. Kang, E. H. Lee & K. H. Kang. (2020). Effects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perceived organizational vision and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6(5), 468-477.
DOI : 10.11111/jkana.2020.26.5.468
- [23] H. Oh & Y. Park. (2021). Factors associated with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in new nurses. *Journal of Muscle Jt Health* 28(3), 242-251.
DOI : 10.5953/JMJH.2021.28.3.242
- [24] H. R. Jung. (2021).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inical competency o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new graduate nurses*.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 [25] N. Y. Kim & J. H. Park. (2021). Nurses' work-life balance o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shared leadership.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7(2), 118-126.
DOI : 10.11111/jkana.2021.27.2.118
- [26] C. S. Wong & K. S. Lo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 [27] H. R. Jeong, H. J. Chio & M. S. Park. (2020).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K-WLE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0(4), 611-620.
DOI : 10.4040/jkan.20109
- [28] Manz, C. C. (1983). *The art of self-leadership :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New Jersey : Prentice hall in.
- [29] H. S. Ki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30] H. Kim. (2017). Self-leadership,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5), 267-281.
DOI : 10.22143/HSS21.8.5.15
- [31] E. W. Morrison. (2002). Newcomer's relationship: the role of social network ties during soci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6), 1149-1160.
- [32] J. Yu & Y. Lee. (2017). Factors influenc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 Convergence*, 20(5), 385-393.
DOI : 10.21289/KSIC.2017.20.5.385
- [33] K. Lee. (2020). A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depress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8(4), 231-239.
DOI : 10.15268/ksim.2020.8.4.231
- [34] O. S. Lee & M. O. Gu. (2014).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4(6), 682-696.
DOI : 10.4040/jkan.2014.44.6.682
- [35] H. Kim. (2017). Self-leadership,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8(5), 267-281.
DOI : 10.22143/HSS21.8.5.15

임 세 미(Semi Lim)

[정회원]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 석사
- 202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 박사
- 2021년 4월~현재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nccsemi@gmail.com

염 영 란(Youngran Yeom)

[정회원]



- 200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9년 8월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9년 9월~현재 : 조선간호대 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pseudoan@naver.com